



길목교회
THEWAY.NEWS

주후 2023.10.15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유튜브&카카오채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37 노블리제빌딩
406호 더블어섬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이메일

gilmokchurch@gmail.com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전도사 : 전정민
전도사 : 황예찬
음악사역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황예찬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치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뱃 속 깊이 그리스도인

세상 철학과 자신의 감각보다 더 우선하는 건 성경, 익숙히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공부 및 주중 세미나] 주일 오후 2시 및 주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받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바쁜 현대인의 삶으로

건물 안에서만 고백하고 활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치열한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합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신앙, 성경에 대해 궁금한건 언제든지 편하게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주일에배

오전10:30 커피타임으로 시작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자

입례송.....〈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같이

F A Dm F/C Bb Gm7 Csus
 왕 이 신 나 의 하 나 님 - 내 가 - 주 를 높 이 고 -
 C7 F A Dm F7/C Bb C7 F Bb/F F
 - 영 원 히 주 의 이 름 을 - 송 축 하 리 이 다

성시 교독.....〈요한복음 1장〉..... 다같이

(인도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도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인도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성도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인도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도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인도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도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인도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도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도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인도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다같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회 기도.....〈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 **〈디도서3:3-11〉** **다같이**

말씀 듣기와 묵상 **다같이**

말씀 권면 **이길주 목사**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D G C F C Dm Gm C 3 F

사랑의나눔있는곳에하나님께서제시도-다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 감사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3-8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역시 어리석고, 완고하고, 죄에 쉽게 넘어가며, 온갖 욕망의 지배를 받고, 원한을 품은 채 돌아다니며,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으로 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새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 분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더 나은 삶이 다가올 텐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대는 이 말을 믿어도 좋습니다.

8-11 나는 그대가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을 분명하게 처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유익한 본질적인 일에 전념하게 하십시오. 족보와 율법의 세부 조항을 따지는 어리석고 부적절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런 일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툼을 일삼는 사람이 있거든, 한두 번 타이른 뒤에 손을 떼십시오. 그런 사람은 제멋대로 굴다가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불화를 일으키다가 스스로 고립될 뿐입니다.



[딤후 3:3-11] 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7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1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새가족환영회 순서

점식 식사 ॥ 다함께 맛있게

축하연주 ॥ 김고은 집사

레크레이션 ॥ 황예찬 전도사

소개 & 길목교회 IS ॥ 다같이 신나게

축하영상과 특순 ॥ 교역자 일동

찬양 & 기도 ॥ 다같이 은혜롭게

단체사진·가족사진 촬영 ॥ 다같이 멋지게

커피타임 ॥ 다같이 행복하게

우리는 다 같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는 곳,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가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길목공동체 모두가 교회입니다



감사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Words and Music by Henry Smith

거룩하신 하나님 - 주께 감사드리세 - 날

위해 - 이땅에 오신 독생자 - 예수 나

의 맘과 뜻 다해 - 주를 사랑합니다 - 날

위해 - 이땅에 오신 독생자 - 예수 내

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 할 때 우리

를 부요케 하 신나의 주 감 - 사 내

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 할 때 우리

를 부요케 하 신나의 주 감 - 사 감사 -



우간다 사역에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주보 공동체소식면에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 자립 프로젝트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회자로 살거나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을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가 거의 전무한 신학생들은 생계를 위한 전선에 뛰어들고 목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역자 자립 프로젝트를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반기 제자훈련을 통해 키워진 사람들에게 하반기에는 직업학교를 통한 자립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선생님들을 영입하고, 이후 기술을 익힌 사람들에게 사업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창원지원센터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

한국의 주일학교가 비어가는 상황에서 우간다는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합니다. 중고등학교만 들어가도 가치관이 형성되어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여 복음대로 살도록 하는 주일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여명의 아이들이 주일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준비하신 다음세대를 통해 우간다가 준비되고 부흥해 나가도록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십시오.

세종학당 사역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간다의 귀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 글로벌 리더로 키워가는 사역입니다. 우간다를 복음위에 세우기 위해 각 영역의 인재들을 키워 한국으로 유학보내고 취업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돕습니다.



교회안내

하나님나라를 위한 길목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12:3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30~3:3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전도사	황예찬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황예찬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헌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의 추구가치

길목교회의 방향성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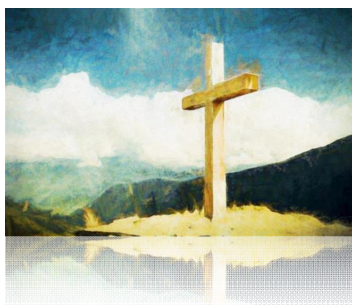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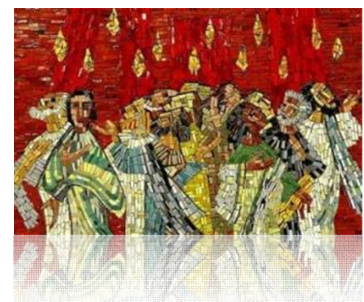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소식

주님 나라를 위한 행복한 공동체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환영회

오늘은 주일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모두 꼭 참석 해주세요 ^^

담임목사 성지순례 가이드 사역 마침

지난 주간 로마,그리스,터키 성지순례 사역중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중보해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신 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은혜가운데 무사히 복귀하였습니다.

선교후원 사역 약정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구영삼, 함윤숙> 선교사님의 사역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재정으로 협력해주시요.

선교사님은 우간다에서 제자훈련과 주일학교, 세종학당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젊은 리더들을 양육하여 우간다를 복음으로 세우려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20세 미만이 전체인구의 60%나 되는 우간다에서 어린나이에 기독교세계관을 형성하여 복음으로 살게하는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신청서를 작성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사역협력: 주일학교 어린이와 교사에게 장학금 후원

약정형태: 월1만원씩 1년 후원 (10명 모집) + 교회에서 월 10만원씩 후원

후원방법: 교회 통장으로 <본인이름+우간다>로 매월 입금 (교회통장에서 선교사님 계좌로 매월 송금)

교회통장: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